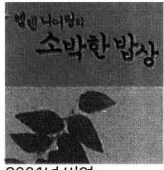


## 삼 페 인 ?

## 상 파 뉴 ?

번역작가 공경희



2001년 번역

인터뷰를 하거나, 대학에서 강의할 때 서두에 꼭 받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번역작가가 됐는가?' 대학졸업 직후 번역작업을 시작해서, 출산 후 6주를 제외하면 1주일도 내리 쉬어본 적이 없이 15년 간 이 일을 했고, 또 수없이 받은 질문이건만 그때마다 대답하기가 난감하다. 영문과 시절부터 번역 작가가 될 뜻을 세우고 노력한 끝에 기회를 잡았으니 '꿈은 이루어진다' 였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럴적하게 들릴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시절에는 번역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뿐더러, '될 수 있으면 영어 문장이랑은 멀리 하며 살겠다' 고 마음먹었으니 꾸며서라도 그런 대답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떠올린 대답은 '운명처럼 시작되었다.' 시시껄렁하면서도, 돌이켜보면 그보다 정확한 대답은 없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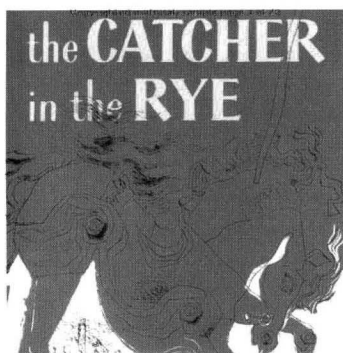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서 출판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저작권법이 발효되어,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외국 작가와 한국어 출판 독점권 계약을 하고 원작자에게 인세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한 종의 책을 수십 군데 출판사에서 낸다고 문제될 게 없었다. 먼저 출판해서 먼저 파는 것이 관건이었고, 신속성이 우선인 상황에서 번역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신경이 덜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세를 주고 계약을 하면, 다른 출판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책 만들기에 공을 들일 시간을 확보하는 셈이었다. 따라서 번역서의 경우 번역자와 책 본문 디자이너, 표지 디자이너가 중요해지고, 번역서도 일간지에 광고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덩달아 번역자 이름도 알려지게 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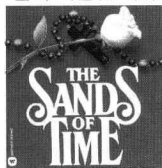
1998년 번역

그런 시기에 번역 작업을 하게 되었으니 - 희한하게도 내 입으로 먼저 '시켜 달라' 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일이 '내게로 다가들었다.' 그러니 운명이랄 밖에 - 선배 번역작가들보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일을 시작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행운이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번역소설로는 거의 첫 저작권 계약 작품인 시드니 셸던의 《시간의 모래밭》으로 정식 데뷔했으니 운이 역세게 좋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시 나는 출판에 대해 어찌나 아는 게 없었는지, 김영사의 박 주간에게 연락하라' 라는 메모를 보고 전화해서 '박 주간 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박 주간 씨' 는 바로 김영사의 박주간 사장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드니 셸던을 만났고, 그의 재담에 취하고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반응을 나에 대한 반응인 줄 오해하고 신이 나서 '계속 잘해 보겠다' 는 각오로 한 권 한 권 번역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말았다. 운명처럼.

운명처럼 번역 작업을 만난 것까지는 멋진 일이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번역작가였으니 실수가 얼마나 많았을까.



2001년 번역



1998년 번역

'될 수 있으면 영어 문장이랑은 멀리 하며 살겠다' 고 마음먹었으니 꾸며서라도 그런 대답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떠올린 대답은 '운명처럼 시작되었다.' 시시껄렁하면서도, 돌이켜보면 그보다 정확한 대답은 없으니까.

《시간의 모래밭》의 주인공 하이메의 이름부터 사정없이 잘못 불러버렸으니! 원서에 'Jamie' 로 나와 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제이미' 로 부르면서 원고지(당시에는 2백자 원고지에 원고를 썼다)를 신나게 채워나갔는데, 소설이 끝나갈 때쯤 누군가의 지적으로 스페인어에서는 'J' 를 '히' 로 읽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아, 그래서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부르는구나' 란 생각이 비로소 들지 뭔가. 가슴을 쓸어 내리며, 그 많은 '제이미' 를 '하이메' 로 일일이 고쳤다. 그때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똑같은 알파벳이라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배웠다.



1993년 번역

두 번째 작품은 당시 유명했던 미니 시리즈 <데이지 공주>의 필자인 주디스 크란츠가 1, 2차 대전 무렵 프랑스의 와인 제조가 문 일가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재미난 소설이었다. 지금은 와인이 우리 문화에도 제법 깊숙이 들어와 있고 정보도 너무 많아 선별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당시 와인은 포도로 만든 술이란 정도만 알았던 나로서는(물론 마셔본 적도 별로 없었다) 샴페인도 와인의 일종이라는 걸 그 책을 통해 알 정도로 아는 게 없었다. 그런 마당에 와인 제조하는 집안 이야기를 하려니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까. 책을 받아들고 읽으면서 'champagne' 이란 단어를 사전의 도움 없이 '샴페인' 이라고 읽은 사실에 고무된 나머지, 소설의 배경인 Champagne(샴파뉴)까지 내리 통일해서 '샴페인' 으로 읽어버렸으니.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의 모래밭》에서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 덕분(?)에 원고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차렸다. 더구나 이번에는 가슴도 쓸어내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샴파뉴라고 불러야지, 왜 미국식으로 무식하게 샴페인으로 불러서 사람 헛갈리게 하는 거야?' 라고 흥분했으니, 누구의 무식을 탓해야 할지.

번역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알고 인식하면서 일을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남는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몇 달에 걸친 작업을 통해서 몸으로 배우며 지금껏 지내왔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듣고 배우는 것은 쉽게 잊어도, 뼈아픈 경험은 잊히지 않고 정신차려 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영문과를 다닐 당시 '번역' 이란 말을 들어본 것은 초우서를 전공한 교수님의 '번역은 반역이다' 란 단 한마디뿐이었다. 하지만 15년 전 전업 번역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 원작자와 우리 독자 사이에 다리가 필요하니 내가 다리를 잘 놓아보겠다는 다짐은 늘 마음에 담고 산다. 그래서 반역도 안 저지르고, 아름다운 다리도 놓기 위해 이 아침도 책상 머리에 다가앉는 것이다. **공경희**

공경희 1965년 서울 출생. 서울대 영문과 졸업. 현재 명지대 평생교육원 번역작가 양성과정에 출강중이다.